발행인 박동욱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신고번호 종로 라00049

HYUNDAI E&C TODAY

2018/06/20
Wednesday

Vol 354

Toward Global Top Tier

서울 서북부에서 만나는 'Dream Hospital'

Eunpyeong St. Mary's Hospital

Hyundai E&C is working on the construction of Eunpyeng St Mary's Hospital, the largest medical institution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capital and the northern area of Gyeonggi-do. The new hospital project, located in Tongil-ro, Eunpyeong-gu, is to construct a main building of 17 floors above ground and seven basement levels and an annex of eight floors above ground and five basement levels with 178,624 square meters of total floor area. The construction site is accelerating its efforts to finish up the project with the aim to open the new general hospital in May, 2019. As of now, 59 percent of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Continued on page 6, 7

현대건설이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권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인 은평성모병원을 건설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세워지는 은평성모병원은 연면적 17만8624㎡에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본관과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의 별관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장은 2019년 5월 개원을 목표로 공정률 59%를 보이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6, 7면

H Leaders visit overseas construction sites

Hyundai E&C held the five-day program designed to give an opportunity for H Leaders to visit its construction sites abroad between May 29 and June 2. The yearly field trip program has been held since 2010 to help Hyundai E&C's partner companies tap into the global market and enhance global capabilities.

In their visits to Hyundai E&C's construction sites such as The Elements Apartment at Kuningan Lot 16 project (Indonesia), the Shangri-La Residence project (Indonesia), and the Tuas Finger 1 reclamation project (Singapore), 17 CEOs from excellent partner companies identified new trends in the local construction markets and gathered up-to-date information on building and civil work areas. In particular, Korea's primary builder introduced various ways to help its partner companies make inroads into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in a stable way through holding briefing sessions in the Jakarta branch in Indonesia and KOTRA Singapore.

'2018년 H Leaders 해외 현장 견학'… 동반성장의 전략을 나누다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2018년 H Leaders 해외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H Leaders 해외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우수 협력사 대표 17명이 현대건설의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랏 16 공사 현장, 인도네시아 샹그릴라 레지던스 현장,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 원 매립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현지 건설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건축·토목 분야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 KOTRA 싱가포르 지부에서 '해외공사 현지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사가 해외 진출 시 안정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견학에 참여한 세일이앤에스 심기석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현장 책임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맞춤형 상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동반성장펀드(300억원)' 외에 직접자금 3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중소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특허라이선스 공유, 마북리 연구시설 무상대여 등 기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Our company wins Daechi SsangYong II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Six apartment buildings of up to 35 floors above ground with 560 units

Our company has been selected as a constructor for the Daechi SsangYong II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on June 2 by winning 196 out of 352 votes at the relevant general meeting. The reconstruction project, to be located in Daechi-dong, Gangnam-gu, Seoul, is to build six 35-storey buildings with 560 units. Construction is expected to cost 180.9 billion won.

Our company suggested a variety of specialized designs such as a 100-meter high skybridge and a large-scale gateway connecting the entrance of the apartment complex with one frame. Along with the block design which allows residents to view the Yangjae Stream, our company plans to offer panoramic elevators and roof-top community facilities.

"Obtaining this project has enabled us to get the upper hand in other bidding processes for reconstruction targeting the Daechi-dong area," said an official of our company. "We will exert all-out efforts to leverage our technological and construction competencies to befit the THE H brand."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1809억원 규모, 지상 최고 35층, 6개 동, 560가구의 단지로 탈바꿈

우리 회사가 강남권 노른자위에 위치한 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우리 회사는 6월 2일 열린 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총회에서 352표 중 196표를 얻으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프로젝트는 공사비만 1809억원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6개 동, 560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우리 회사는 지상 100m 높이의 스카이브리지, 단지 입구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대형 문주 등 각종 특화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양재천을 조망할 수 있는 주동설계를 적용하고 전망형 엘리베이터,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향후 대치동 일대에서 진행될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하는 만큼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녹여내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해 도시정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향후 발주되는 도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PHOTO NEWS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준공식 개최

우리 회사가 시공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준공식이 6월 15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박동욱 사장(사진·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데이비드 치퍼필드 건축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욱 사장은 사옥 시공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2014년 8월 착공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총 공사비 5554억원, 지하 7층~지상 22층, 대지면적 4394평, 연면적 5만7143평 규모로 39개월만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독일 DCA社의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맡았다.

싱가포르 오염토양 정화 기술 적용 실증사업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Jurong Town Corporation)가 발주한 '오염토양 정화 기술 적용 실증사업'을 수주했다.

우리 회사는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오염 준설토 대상 최적 공정 개발 및 실증 연구 ▶싱가포르 현지 기술 검증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그 후속 프로젝트로 싱가포르에서 정화가 시급한 지역의 토양, 슬러지, 소각재 등 육상 오염 물질을 우리 회사가 개발한 정화 기술을 이용해 재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비는 약 71만 싱가포르 달러(약 5억7000만원)다.

사업은 착공 후 28주간 진행 예정으로 ▶오염 물질 시료 채취 ▶시료별 최적 운영인자 검토 ▶실증 플랜트 정화검증 ▶위해성 평가 및 정화물질 재활용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뛰어난 공사수행 능력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토양 정화 기술로 이번 R&D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향후 수조원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 지역 토양 정화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순회 서비스 실시

우리 회사가 국내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4년 이상 된 장기 및 오지 현장 27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 순회 서비스'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무실의 이번 활동은 ▶사무실/숙소 화장실 도기 보수 ▶전기/설비 기본 점검/보수 ▶냉난방기 점검 ▶책상·의자 등 고장 수리 ▶사무실, 숙소 방역 ▶PC 및 네트워크 긴급 점검 등으로 현장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충청 지역 오지현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총무실 담당자는 "보수·수리 업체가 방문하기 어려운 오지 현장의 시설물·비품·방역·OA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 근무환경이 말끔해지는 만큼 직원들의 호응도 좋다"고 말했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 중국서 미래기술 경쟁력 높인다

현대자동차가 6월 13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개막한 'CES 아시아 2018(CES ASIA 2018)'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중국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딥글린트(DeepGlint)'와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바이두(Baidu)'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함께 모빌리티(Moblity)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7기 모집

현대자동차가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자동차 산업 현장과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트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이하 영현대 기자단) 17기를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대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자동차에 관심 있는 대학생으로, 향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내국인 재(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현대자동차 대표 대학생 사이트 영현대(http://young.hyundai.com)를 통해 가능하다.

분양 소식

'힐스테이트 학익' 6월 분양

우리 회사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용현·학익7블록 A-1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학익' 616세대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학익은 지하 2층~지상 40층 5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별 △73㎡A 256세대 △73㎡B 147세대 △84㎡ 213세대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학익은 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단지에서 수인선 인하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개통 예정인 학익역(예정)도 도보권에 있어 더블역세권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간), 인천대교 등 광역도로망 접근성도 좋아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는 전 세대가 4Bay 구조에 남측향 배치로 채광도 뛰어나다. 실내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 설계로 개방감을 높였다.

분양문의: 1522-2562

Music festivals are a hot ticket for young Koreans

June 05

Music festivals have become some of the most popular cultural events for young Koreans today, and the genre of music being performed doesn't seem to matter in attracting crowds. People love to enjoy festivals being held outdoors and take the opportunity to check out artists from both home and abroad in one place. Back in 2000s, there were only a couple of large music festivals that young Koreans went to. Today, there are about 30 music festivals held throughout the country. The response to the festivals are also hot. Blind tickets, or the early bird tickets that get sold prior to the festival's line-up being revealed, for the "Let's Rock Festival" which is being held on Sept. 15, opened on May 2 and sold out instantly. The majority of festival-goers in Korea are in their 20s and 30s. EDM, or electronic dance music, festivals are especially popular among younger crowds.

1 The number of music festivals in Korea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The World DJ Festival. 3 A picnic prepared by a music festival attendee.

Coming Soon! Music Festivals

- MBC WATERBOMB 2018
  Overwerk, Keith Ape, Loco, etc
  7/20-21 @Seoul, 7/28 @Busan
- GREEN PLUGGED DONGHAE 2018
  Guckkasten, Day Break, MeloMance, etc
  7/21-22 @Mangsang Beach, Kangwon Province
-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Nine Inch Nails, Hoobastank, etc
  8/10-12 @Pentaport Park, Incheon
- LET' S ROCK FESTIVAL
  JAURIM, Guckkasten, Crying Nut, etc
  9/15-16 @Nanji Hanriver Park

Festivals are also expanding their reach. Back in the early years of music festivals, most of them were concentrated in Seoul, but today, many are being held outside the capital city. Most festival-goers don't make their annual visits solely for the music. Many of them in fact visit the festival without knowing much about the artists or their songs, but become fans after seeing them perform.

Lee Jeong-min, head of trend analysis firm Trendlab 506, says there's a reason for this transformation of music festivals here in Korea. "Music festivals are a perfect event for millenials to enjoy," Lee said, explaining that big beer brands like Cass and Fitz spend millions to become the main sponsors of these music festivals.

One of the elements of a music festival that is especially appealing to younger crowds is that they are social media friendly, allowing attendees to "look hip," says Lee, when uploading photographs and videos of themselves enjoying the festival on their Instagram accounts. Another element is that music festivals provide "experiences" that most millenials regard as important. Festivals offer an escape from the city, an opportunity to showoff their best looks and a day to enjoy the outdoors with friends while listening to great live music.

By KOREA JOONGANG DAILY

Kenya looks to Korea for power

June 12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industry, despite the domestic phase-out of nuclear power. Africa is now emerging as the latest target for Korea's nuclear ambitions, as the continent continues to face perennial energy shortage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 state-run nuclear energy research think tank, held a workshop in Kenya from June 4 to 7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nuclear reactors to the African nation for research purposes. The workshop was a follow-up 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institute signed with the Kenya Nuclear Electricity Board last September.

A total of 30 researchers and field experts from Korea and Kenya attended the workshop, according to the institute. The institute said that Kenya

requested Korean assistance in establishing a plan to introduce nuclear reactor for research purposes before building an actual power plant.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Hyundai Teams Up With Maroon 5 for the Upcoming 2018 FIFA World Cup Russia™

Hyundai Motor, the Official Partner of the 2018 FIFA World Cup Russia™, has enlisted multi-platinum GRAMMY Award winning band Maroon 5 to record a version of Bob Marley & The Wailers iconic feel-good anthem 'Three Little Birds.' Through the song, Hyundai will communicate that its smart technology means consumers can forget their worries and enjoy a driving experience both in and out of the car. The new campaign will launch for the first time at the 2018 FIFA World Cup Russia™ with a new television advertising campaign. In addition, a music video has been created by Grammy award winning director Joseph Kahn featuring Hyundai's new fuel cell electric NEXO model.

Hyundai Motor becomes Global Automotive Partner of Chelsea Football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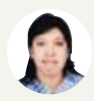
Hyundai Motor today announced a multi-year partnership with Chelsea Football Club, which will see the Hyundai brand logo presented on the sleeve of the new Blues jersey in all domestic competitions from next season until 2022, as the Global Automotive Partner. The deal with Chelsea is the first time that Hyundai has ventured into the UK football market. The new partnership extends Hyundai's long-standing presence in football at the highest level, having been continuously engag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for the last 20 years. With this partnership, Hyundai will not only be visible on the jersey but also through car displays and various media and digital content rights.

Hyundai E&C Today's Online Event Tune in 2 U

How to beat the heat

The hottest season in Korea is just around the corner. In Korea boasting four distinct seasons, summer is from June to August. As summer is humid and hot, people try to find their own ways to escape from the heat, such as enjoying special summer dishes and taking summer vacations. How about you? Many employee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shared their own ways to deal with heat. We would like to thank those who sent emails, and here are the best comments.

Arman Nabor Gonzales
(Singapore Industrial and Commercial Waste Fired Boiler Facility)
Go out for summer refresh! I recommend mountains or waterfalls where you can see a river or lake and forest surrounded by big trees.



Chathurani Gunathilaka (Sri Lanka Keells City Project)
1. Stay hydrated. Keep a bottle of water handy throughout the day. Don't wait until you feel thirsty.
2. Take a nap. Even if you sleep in an air-conditioned room, a heat wave can affect your sleep cycle. Take a short nap during the day to refuel your energy.
3. Pay attention to your diet. It's normal for your appetite to go down in extreme heat. Adjust your intake by eating smaller meals more frequently. Avoid heavy foods and opt for lighter fare, such as salads, fruits and cold pasta dishes. Foods high in potassium (such as broccoli, cantaloupe, potatoes, spinach, watermelon, sweet potatoes and mushrooms) can have a natural cooling effect on the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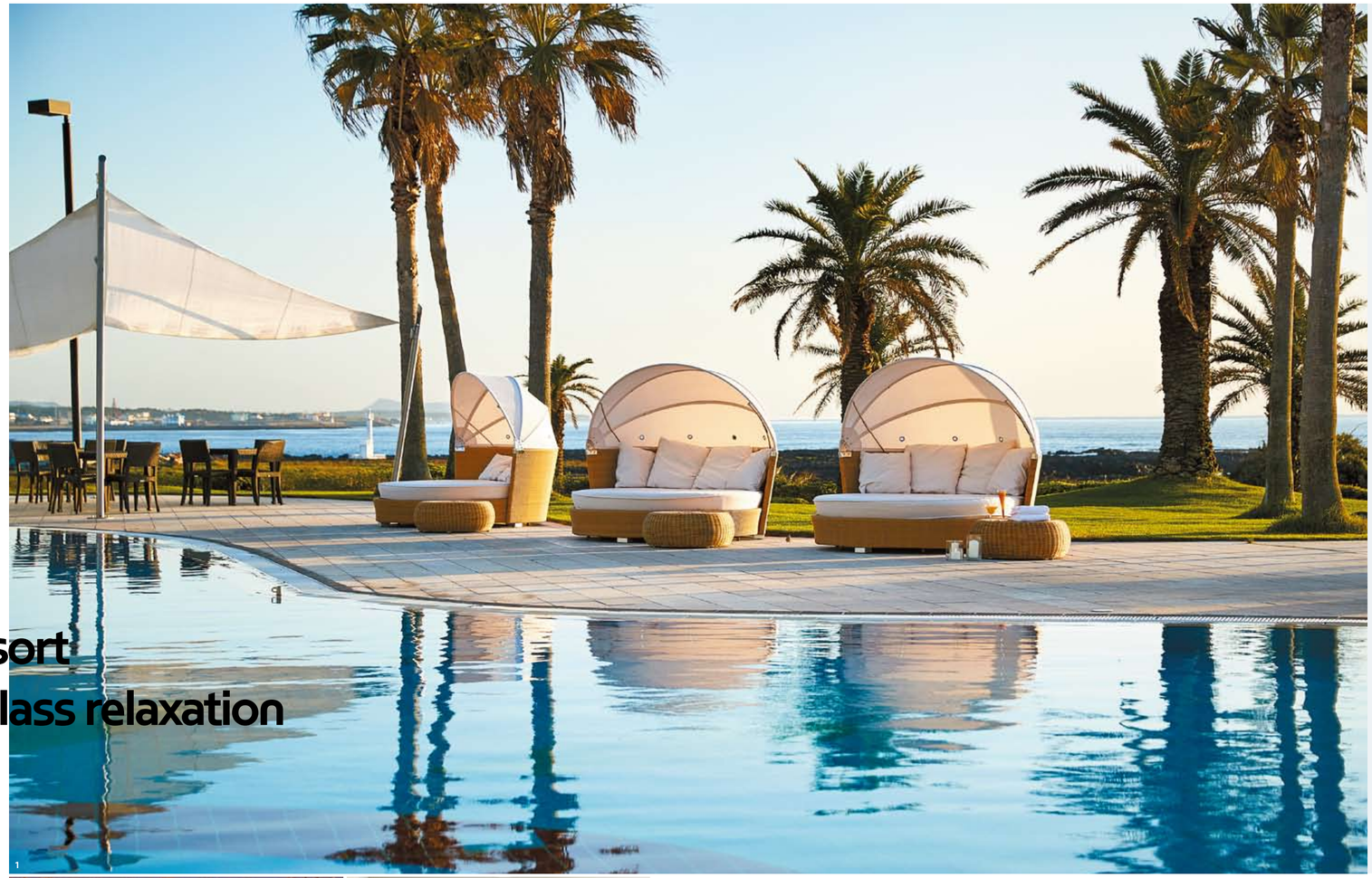
4. Place damp towels around neck and shoulders to cool yourself, and place your feet in basin or bucket of cool water.
5. Rest! Don't do unnecessary work.

Mohanan Sreedharan (Dubai Eye Project)
In UAE, we are advised, by the Safety Department and other local bodies, of the danger of not taking a lot of water. For monitoring the urine color there is a chart displaying how to confirm if the intake of water is sufficient. Drinking cold water and ice making machines are recommended, and ORS (oral rehydration salts) is provided to those working under the sun. As the summer heat reaches the peak, there is restriction of work during the afternoon.

Fruits commonly consumed during the summer are watermelons, dates and so on. To prevent heat waves, the head is covered with white cloth and cotton dresses. At the beaches there are many people taking a bath, and many also spent their time in Mediterranean in Europe to beat the heat.

그룹사 바로 알기③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국내 최고의 호텔과 개성 있는 숙박 시설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제주도. 그중에서도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제주 내 최고의 휴식 공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호스피탈리티 계열사로 대한민국의 호텔 및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해 알아보자. 글=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홍보팀 윤지숙 과장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밀리우.


1

Haevichi Hotel & Resort
Best place for high class relaxation

Haevichi Hotel & Resort is a hospitality company which operates hotels, resorts, golf courses, restaurants and fitness centers at home and abroad. Starting in 1999 under the name of Haevichi Country Club in Jeju Island, Haevichi opened the Westin Resort Guam last year in an effort to go beyond Korea and reach out to the world. It is devoted to offering top-notch hospitality services and differentiated values by expanding its business area into the operation of restaurants, fitness centers and spas, and the commissioned management of a training institute. Haevichi Hotel & Resort was ranked no. 1 in the category of Jeju Island's resort in the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KS-SQI) eight times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9 and 2017.

Haevichi Hotel & Resort Jeju is renowned as one of the country's best all-inclusive resorts consisting of 288 hotel rooms decorated with eco-friendly designs and top-notch facilities, 215 resort rooms with kitchens for simple cooking, and a 36-hole golf course where golf players can enjoy Mt. Hallasan and the sea all year around.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island which retains the island's unique atmosphere, Haevichi Hotel & Resort Jeju boasts that about 70 percent of total rooms face the sea. It features a variety of facilities, such as eight restaurants and bars including French fine dining, an indoor pool connected to the outdoor pool where users can enjoy swimming until late night in heated water, a spacious playing zone for kids, a spa, a fitness center, and a board game cafe. Moreover, it has a total of six banquet halls available for various parties and meetings, the largest in size operated by a hotel in the country's favorite holiday destination. As the banquet hall can accommodate up to 1,400 people for an event, Haevichi Hotel & Resort Jeju held a wide range of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Haevichi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 renovate and expand its facilities with the aim to enhance the satisfaction level of various customer groups. The phased renewal project, which was completed in early 2015, enabled the hospitality company to offer more modern and comfortable rooms and facilities to its guests.

In addition, Rolling Hills Hotel, located in Hwaseong, Gyeonggi-do, is a resort-type hotel where art is in harmony with the nature. One of the finest hotels for relaxation in the capital area has already gone viral among family customers. The Westin Resort Guam is famous for its elegant five-star accommodations. As the resort is at the gateway to the Pleasure Island, Guam's premier shopping, dining and entertainment district, its guests can conveniently enjoy recreation, leisure and shopping.

2

3

4

1 객실뿐 아니라 실외 수영장 등 어느 곳에서나 제주의 동쪽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2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의 내부 전경. 3 3000여 권의 어린이 도서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등을 갖춘 어린이 시설 '모루'. 4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오션 뷰 객실에서 바라본 전망. 5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파트별·직급별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주요 여름 패키지 및 프로모션 소개

서머 브레이크 패키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가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머 브레이크 패키지(Summer Break Package)'를 선보인다. 편안한 수페리어 객실에서의 1박과 실내·외 수영장 이용 혜택, 제주도의 천연 암반수로 이뤄진 사우나 2인 이용 혜택이 제공돼 일상과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아울러 해비치만의 특색이 담긴 식음료도 즐길 수 있다. 제주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섬모라 조식 뷔페 2인과 해비치에서 자체 개발해 선보인 수제 맥주 '해비치 위트 비어' 2잔 및 스낵 세트가 제공돼 물놀이 후 출출함을 달래기 좋다. 2박 예약 시 제주산 애플망고가 듬뿍 담긴 스페셜 망고 빙수가, 3박 시 비치타월과 책 1권이 제공된다. 패키지 가격은 37만4000원부터다(세금 및 봉사료 별도).

제주의 특색을 담은 해비치 위트 비어 출시

해비치만의 특색과 정체성을 담은 크래프트 비어 '해비치 위트 비어(Haevichi Wheat Beer)'가 6월 1일 출시됐다. 해비치 위트 비어는 유럽산 노블 홉을 사용한 밀 맥주를 바탕으로 제주산 감귤 농축액을 다량 함유해 감귤의 풍미와 상큼한 맛은 물론 제주의 지역적 특색까지 담았다. 오렌지 껍질, 코리앤더(고수) 등의 향신료를 적절한 비율로 첨가해 감칠맛과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다. 유럽산 노블 홉은 맥주 마니아들 사이에서 '홉의 귀족'으로 불리는 최고 품질의 홉이다. 해비치 위트 비어는 코리아 크래프트 브루어리 '아크 비어(Ark beer)'와의 협업으로 개발했는데, 개발 과정에는 해비치 식음 전문가 및 셰프가 참여해 맥주 자체의 맛뿐 아니라 음식과의 조화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해비치 위트 비어는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롤링힐스 호텔, 해비치 컨트리클럽 서울 및 제주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내 모든 식음료 업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가격은 제주 해비치 기준으로 병맥주 1만1000원, 생맥주 1만2000원이다.

제주에서 만나는 근사한 프렌치 다이닝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가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밀리우(Milieu)에서 새로운 총괄 셰프 '폴 셈보시(Paul Semboshi)'의 스페셜 메뉴를 선보인다. 폴 셈보시는 프랑스 파리의 명문 요리학교 '르코르동 블루' 수료 후 11년간 리츠 호텔, 포시즌스 호텔 등 프랑스 특급 호텔 내 유명 레스토랑을 거치며 실력을 쌓았다. 그가 밀리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번 시즌 메뉴는 제주산 유기농 아스파라거스와 금태(눈볼대), 한우, 한라봉 등 제주산 식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했으며, 식재료 자체가 지닌 풍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이색적인 요리들로 구성했다. 6가지 코스 12만원, 8가지 코스 15만원이다.
밀리우는 주방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오픈 키친 형태로, 12개의 바 좌석과 5개의 룸으로 이뤄져 있다. 한정된 좌석으로 사전 예약을 추천하며,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월요일 휴무).

최고의 품격과 여유를 만끽하는 일상 그 이상의 공간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는 호스피탈리티 기업

'해가 처음 비추는 곳'이라는 뜻의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국내외 호텔, 리조트, 골프장, 레스토랑, 라이프 피트니스 등을 운영하는 호스피탈리티 기업이다. 1999년 제주도에 해비치 컨트리클럽을 시작으로 2003년 해비치 리조트 제주, 2006년 경기도 화성의 롤링힐스 호텔, 2007년 해비치 호텔 제주를 개관했으며 2017년 웨스틴 리조트 괌 운영을 시작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 또한 레스토랑, 라이프 피트니스, 스파, 연수원 위탁 운영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해비치만의 고품격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회에 걸쳐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제주 리조트 부문 1위를 달성했으며 2013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2015년 '제주관광대상' 종합부문 대상, 2017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제주를 비롯,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 나가는 해비치

주요 사업장인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자연친화적인 디자인과 최고급 시설로 꾸민 288실의 호텔,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215실의 리조트, 한라산과 바다를 조망하며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36홀의 골프장을 보유한 최고급 종합 휴양 리조트다. 가장 제주다운 모습이 잘 보존된 제주 동쪽에 위치하며, 전체 객실 중 70%가 오션 뷰다. 레스토랑, 수영장 어디에서도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비롯한 8개의 레스토랑 및 바, 늦은 저녁까지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온수 풀을 포함한 실내·외 수영장, 100평 규모의 키즈 시설, 제주 민간요법을 활용한 스파, 피트니스, 보드게임 카페 등 내부에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연회나 회의가 가능한 총 6개의 연회장은 단일 호텔로는 제주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최대 1400명까지 한곳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어 제주 평화 포럼을 비롯한 국제적인 대형 행사들이 개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롤링힐스 호텔'은 자연과 아트가 어우러진 리조트형 호텔이다. 수도권의 여유로운 휴식 공간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웨스틴 리조트 괌'은 총 432개의 객실과 뷔페 레스토랑을 포함한 7개의 레스토랑, 바, 투몬 해변과 연결된 야외 수영장, 스파 시설 등을 갖춘 5성급 리조트다. 유명 쇼핑몰과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명소가 즐비한 괌 최대 번화가인 '플레저 아일랜드(Pleasure Island)'와도 인접해 휴양, 레저, 쇼핑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지속적 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직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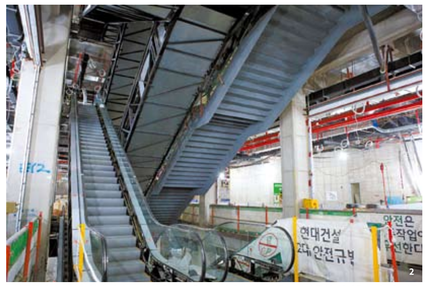
해비치는 다양한 고객군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및 확충에 힘쓰고 있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2015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리조트 전면 리뉴얼을 단행해 현재 모든 객실이 한층 현대적이고 안락한 시설을 갖췄다. 또한 2015년에 제주 호텔 최초로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밀리우'를 오픈했다. 2016년에는 국내 호텔로는 최대인 100평 규모의 실내 어린이 교육 및 놀이 시설 '모루'를 새롭게 열었다. 3000여 권의 어린이 도서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등을 갖춰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놀 거리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아이를 돌보는 부담을 덜어 가족 단위 고객이 완벽한 휴양을 만끽할 수 있다.

5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만나는 직원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비치를 뒷받침하는 조리, 하우스키핑 및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직무별·파트별·직급별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와인, 커피, 주조 등 전문 지식 교육, 조리 교육, 해외 조리 연수 및 서비스, 비전업(Vision Up), 그루밍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진심 어린 서비스와 고객 중심의 가치 경영을 통해 국내 호텔 및 리조트 업계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 호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Hyundai E&C builds the biggest general hospital in the northwestern part of Seoul

1


2

1 북동쪽에서 바라본 현장 전경. 2 지하 1층 중앙 홀 에스컬레이터. 3 실물 크기의 목업. 사진은 지상 7층 병동. 4 지하 1층 통합 내과 진료실을 목업 시공했다.

은평성모병원 현장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로 나와 5분 남짓 걸으면 직사각형으로 우뚝 솟은 건축물이 보인다.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권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인 은평성모병원이다. 2019년 5월 개원 예정인 은평성모병원 현장은 오는 12월 28일 행정 준공(사용 승인)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배영균

서울 서북부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우다

생명 다루는 건물… 병원 내 감염 원천 차단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첨단 의료장비와 고도의 설비가 집약된 특수 건축물이다. 우리 회사는 미군 제121후송병원을 시작으로 이라크 메디컬복합시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싱가포르 쿠텍푸아트병원,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시티 등 국내외 50여 개의 병원을 시공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은평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9번째 부속 병원이자, 우리 회사와 4번째(서울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부천성모병원)로 인연을 맺는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이다.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세워지는 은평성모병원은 연면적 17만8624㎡에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본관과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의 별관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3012억원(현대건설 지분율 100%).

2016년 10월 28일 착공한 현장은 ▶2017년 2월 실시계획 변경인가 ▶2017년 11월 21일 상량식 ▶2018년 3월 말 골조공사 완료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외장 마감 공사와 인테리어 등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최신의 친환경 설비와 강화된 감염 관리 기준을 반영해 설계했다. 세균 감염과 전염을 막기 위한 클린룸과 공조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물론 국내 최초로 응급의료센터 격리실 이중 전실을 설치하고, 감염내과 외래구역 전체에 음압(陰壓) 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전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병원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전기 공사다. 정전이 환자의 생명에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장은 정전에 대비해 전력공급선을 복선화했다. 1개 회선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회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 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도 도입했다. UPS란 주 전류 공급선이 갑작스럽게 작동하지 않거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곳곳에 전류를 바로 공급하는 시스템. 현장 관계자는 "단전 시 비상발전기와 UPS 배터리 등이 즉각 가동한다. 의료진이나 환자가 정전을 느끼지 못할 정도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공법 변경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

은평성모병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장이다. 공사 기간만 봐도 알 수 있다. 현장의 준공 예정일은 2019년 2월이나, 사용 승인(행정 준공)을 위해 공사는 올 12월 28일(26개월)에 마쳐야 한다. 은평성모병원보다 연면적이 1만여㎡ 큰 서울성모병원의 공기가 32개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발주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설사는 현대건설밖에 없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현장의 시계는 착공 직후부터 빠르게 돌아갔다. 초기 인허가 지연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3개월이나 늦어지면서 현장 직원들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해답은 공법 변경과 돌관공사에서 찾았다. 현장은 저층부 포디움(Podium) 구간의 골조공사를 기존 철근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공법에서 철골조(Steel Frame)와 데크 플레이트 슬라브(Deck Plate Slab) 시공법으로 변경했다. 공장에서 선 제작돼 현장에 반입되는 철골과 데크를 사용하는 이 공법으로 현장은 균일한 품질 확보는 물론 2개월의 공기 단축을 실현할 수 있었다. 또 포디움 마감재 지지 형식을 화강석과 테라코타(Terra Cotta)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트러스(Truss) 방식에서 골조 벽체로 변경해 내·외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단열 및 차수 성능을 높일 뿐 아니라 공사 수행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매주 환경 정화… 중대재해 ZERO!

은평성모병원 현장은 '안전·품질·적기 준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 내 '일일 화기작업 실명제' 현황판을 운영해 누가 어디에서 화기 작업을 하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사전에 알리지 않은 작업을 할 시에는 제재를 가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고소작업대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 작업을 특별 관리했다. 덕분에 현장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은평성모병원은 환경 정화활동을 꼼꼼히 하는 현장으로도 유명하다. 매주 수요일에는 현장 직원 및 협력사 소장 등 50여 명이 나서 지상 17층부터 지하 7층까지 돌며 청소를 한다. 근로자 역시 작업이 끝난 후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다.

6월 11일 현재 공정률은 59%, 행정 준공까지는 6개월여를 남겨 놓고 있다. 현장은 준공과 함께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권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이 된다. 26개월이라는 짧은 공기에도 굴하지 않고 최고의 시공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은평성모병원 현장. 현장의 성공적인 준공이 추가 발주 프로젝트들의 수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3

4

Technology
병원 건축물만의 특수 공정, 성공적으로 시공 중
Special construction processes specific to hospital buildings

Ownership
공법 변경 및 돌관 공사로 지연공기 2개월 만회
Changes in construction methods and speedy construction work to recover the delayed schedule

Pride
우리 회사 병원 시공 노하우의 집대성
Facilitation of hospital construction experience

Interview

병원 시공만 10년, 현장의 지휘자

현장소장 노권 부장

짧은 공기 내에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소장인 노권 부장은 간섭 상황이 불가피한 돌관공사에서 '배려'를 강조한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사 가 지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26개월 만에 공사한다는 것은 건설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입니다. 타 건설사에서도 우리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발주처에서도 '현대건설 아니면 이 공사 못한다'고 말할 정도죠. 많은 관심이 집중된 프로젝트인 만큼 완벽한 팀워크로 완공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 변경도 문제없다, 현장의 품질 지킴이

기술품질파트장 이일용 부장대우

은평성모병원은 주차장과 일부 병실만 빼놓고 초기 설계 계획이 다 바뀌었을 정도로 설계 변경이 잦았다. 현장은 본격 공정에 착수하기 전 실물 크기로 병실·진료실 등을 꾸몄다. 이일용 부장대우는 발주처·감리단과 함께 목업(Mock-up, 실물 크기의 모형)을 보며 개선 사항을 체크한 후 협의된 내용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 현장은 발주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업 시공을 했습니다. 발주처의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 하나라도 놓칠세라 현장에 장시간 머무르며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와 발주처 모두가 만족하는 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현장을 관리하겠습니다."

감염·전염 No! 현장의 완벽 수비수

기계파트장 이경호 부장대우

병원 설비는 냉난방 기기부터 급수 및 오·폐수 처리기, 클린룸 등 무척 복잡하다. 1일 투입 인원이 1000명이라면 그중 400~450명이 설비 인력일 정도로 손도 많이 간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건축설비 경력이 있는 이경호 부장대우는 당시 경험을 토대로 감염과 전염 걱정 없는 설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현장의 공구장 이상은 모두 병원, 클린룸 시공 경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배운 것들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있죠. 남은 중요 공정은 소방 설비 인데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찰나의 정전도 막는다, 현장의 빛

전기파트장 이석 부장대우

병원에서는 짧게라도 정전이 일어나선 안 된다. 은평성모병원의 비상용 발전기 용량은 다른 종합병원의 2배 이상(대개 전체 용량의 10~20% 감당). 이석 부장대우는 "병원 전체에서 필요한 전력 용량의 절반에 달하는 5600kW 규모의 발전기를 설치해 병원의 안전성을 높였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서울 서북부 및 경기 북부 권역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긴급 환자들은 일산 또는 신촌으로 가야만 했죠. 은평성모병원이 개원하면 이 지역의 의료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됩니다. 성공적인 공사 수행으로 향후 추가 수주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이든 돌파해낸다, 현장의 원가 전문가

공무파트장 하태호 부장대우

은평성모병원 현장은 짧은 공기, 잦은 도면 변경, 높은 층고, 복잡한 마감 사양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다. 하태호 부장대우는 초기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3개월이나 늦춰졌던 일을 가장 어려웠던 일로 꼽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법과 설계를 바꾸고 밤낮없이 일한 결과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직원, 협력사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돌관공사를 진행한 덕분에 오늘의 공정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장님과 할 일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협력사와 우리 회사를 위해 원가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회사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1 시마노가 운영하는 자전거 로드레이스 팀 '시마노레이싱'의 선수들이 자전거 경기에 참여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2 1921년 개발한 프리휠. 3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있는 시마노 본사. 4 시마노 구동계 'DURA-ACE R9100'.

해외 기업 탐방 ④시마노

세계 스포츠자전거 부품의 85% 장악 '자전거 업계의 인텔, 시마노'

시마노의 역사는 97년 전 '프리휠'이라는 자전거 핵심 부품을 만들면서 시작했다.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회사지만, 처음부터 지금의 위상을 가졌던 건 아니다. 1980년대 자전거 타는 법을 바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고 폭증하는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생산 기술도 확보한 덕분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올라설 수 있었다. 글=손덕호 〈이코노미조선〉 기자 / 사진=시마노 제공

'자이언트, 메리다, 비앙키, 트렉, 지오스, 루이가르노, 삼천리, 알톤….' 자전거 브랜드는 정말 많다. 그러나 이 자전거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은 일본의 시마노(SHIMANO), 미국의 스램(SRAM), 이탈리아 캄파놀로(CAMPAGNOLO) 단 3개의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시마노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일본 SMBC닛코증권에 따르면 로드바이크와 산악자전거 같은 스포츠용 자전거 부품은 세계 시장의 약 85%, 전체 자전거 변속기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HIMANO HISTORY

- 1921 '시마노철공소' 창업. 프리휠 개발
- 1940 주식회사로 전환
- 1957 내장변속기 생산 시작
- 1965 미국 진출
- 1970 낚시도구 사업부 발족
- 1972 유럽 진출
- 1973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 1989 브레이크와 변속레버를 일체화한 STI (Shimano Total Intergration) 출시
- 1991 상호 시마노로 변경
- 2001 시마노 요조(島野容三) 5대째 사장 취임
  중국 진출
- 2002 대만 진출
- 2007 브라질 진출
- 2011 캄보디아 진출
- 2013 필리핀 진출
- 2014 오사카에 본사 공장
  '사카이 인텔리전트 플랜트(SIP)' 완성
  싱가포르에 '시마노 사이클링 월드' 오픈
- 2015 우루과이 진출
- 2016 시모노세키에 시마노 시모노세키 팩토리
  인텔리전트 플랜트(SSF_IP) 완성

3

4

시마노는 변속기·체인·브레이크·크랭크·페달 등 자전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생산한다. 자전거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세계 완성 자전거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전거 업계의 인텔'이라고도 불린다. 세계 최대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출전 선수들도 시마노의 부품을 선호한다. 2016년 대회에 출전한 22개 팀 중 17개 팀이 시마노의 부품을 채용한 자전거를 탔다.

일반적인 자전거는 페달을 정방향으로 돌리면 앞으로 간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고 뒤로 가지 않는다. 또 달리는 중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차르르르'하는 소리를 내며 관성에 의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프리휠(freewheel)'이라는 부품이 있기 때문이다. 시마노의 역사는 창업자 시마노 쇼자부로(島野庄三郎)가 1921년 이 프리휠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혁신적 제품 선보여 성장 전기 마련

시마노의 강점은 높은 품질과 내구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시마노가 생산하는 자전거 부품의 품질은 60년대부터 쌓아온 정밀 냉간단조(冷間鍛造) 기술 덕분이다. 냉간단조는 상온에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형태를 만드는 가공 방법이다. 공구로 재료를 깎아 가공하는 절삭 공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원재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대량 생산에도 유리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이 좋다. 과거 변속기는 캄파놀로가 기술 발전을 주도했고, 80년대엔 '선투어'라는 브랜드의 마에다공업이 우수한 제품을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마노는 매우 편리한 변속기를 개발해 지금의 위치로 올라섰다. 89년 첫선을 보인 'STI(Shimano Total Integration)'는 브레이크에 변속레버를 일체화한 제품이다.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핸들에 장착된 레버로 기어를 바꿀 수 있다. 그 이전엔 변속하려면 팔을 밑으로 내려 레버를 움직여야 했다. 자전거 운행의 불편을 없앤 혁신적인 이 기술은 곧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시마노는 자전거 부품 업계 선두에 섰다.

자전거 문화 발달한 유럽에서 승부

일본에선 60년대 '마이카' 붐이 일었다. 시마노는 일본 경제가 성장해 자전거 수요 감소가 예상되자 해외에서 활로를 찾았다. 65년 미국에 진출해 자전거 부품 판매를 위한 회사를 세웠다. 80년대 미국에서 MTB(산악용 자전거) 붐이 일었다. 시마노는 냉간단조 기술을 이용해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부품을 양산할 수 있었다. 당시 경쟁 브랜드였던 선투어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뒤처졌다.

2

유럽엔 72년 현지 법인을 세우며 진출했다.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경주용 자전거 부품 점유율을 높였다. 시마노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 구동계 부품을 세트로 만들어 '컴포넌트'로 판매하기 시작한 최초의 업체다. 여러 업체의 부품을 단품으로 구입해 조합하는 것보다 시마노의 부품을 일괄 구입하는 편이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 완성 자전거 업체들 대부분이 시마노 부품을 채택했다.

시마노는 세계 자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만큼 일본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전체의 11.4%(2017년)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서 유럽 지역은 38.2%, 북미 지역은 10.7%를 차지했다.

전기자전거 부품 등 신기술 개발에 투자

시마노는 내년 가을을 목표로 150억 엔(약 15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의 본사 부지 내에 연면적 2만3000㎡ 규모의 새로운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고 있다. 현재 분산돼 있는 디자인, 상품개발, 기술연구 부문을 한데 모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2월 시마노 요조(島野容三)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부품의 연구개발을 효율화하는 외에 10년 뒤에 나타날 자전거의 미래 모습을 의논해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 R&D 센터에선 시마노가 전략 상품으로 개발한 '압축식 디스크 브레이크'나 '페델렉' 방식의 전기자전거 부품 등을 개발하게 된다. 압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가격이 높지만 우천 시에도 제동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스포츠용 자전거의 30% 이상이 이 부품을 채택해 시마노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전기자전거 부품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선 다리 힘이 약해진 중·장년층이 스포츠용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나와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자전거 부품 시장엔 오토바이 시장의 강자 야마하, 전자업체 파나소닉의 계열사 파나소닉사이클테크,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 등이 뛰어든 상태다. 시마노가 기술 개발에 집중해 앞서 나가야 향후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품질 · 내구성 · 가격 3박자 갖춰

전체 매출 90% 일본 밖에서 나와

시마노의 최근 실적은 다소 부진하다. 중국 시장 판매 부진 때문이다. 시마노의 2016년 중국 매출액은 한 해 전보다 34% 감소했다. 자전거 업체에 중국은 특히 중요한 시장이다. 시마노 요조 사장은 "중국 현지 업체는 자전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 빠른 시간에 부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 재고가 잘 팔리지 않으면 재빨리 가격을 낮춘다"고 했다.

과거 중국인들은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탔다.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늘어난 이제는 레저를 위해 자전거를 탄다. 중국에서는 매년 3000회 이상 사이클 대회가 열린다. 중국의 자전거 전문 매체 〈쯔싱처즈자(自行車之家)〉에 따르면 중국의 자전거 시장은 2015년 135억 위안에서 2019년 281억 위안, 2023년 582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자전거 시장이 더 성숙하고 자전거 동호인의 구매력이 커지면 시마노의 중국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싼 중국제 대신 명성이 있는 시마노 제품을 중국인들이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국에선 고급 부품 판매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시마노가 기술 개발에 집중해 앞서 나가야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쓰레기에 대한 고찰,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트렌드 따라잡기 올해 초 중국 환경보호부가 폐 비닐, 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지난 4월 국내에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미세먼지, 온난화 등의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지구에 얼룩을 남기지 않는 삶 ‘노 임팩트 라이프’ 또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글=유승현 〈스타일러 주부생활〉 라이프스타일 에디터 / 사진=그린피스 · 베아 존슨 · 제로 마켓

1

1, 2 베아 존슨의 가족은 천, 유리병 등을 사용하며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하고 있다. 3 그린피스 필리핀은 세계 고래의 날인 지난 2월 16일에 해양 쓰레기로 인한 고래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15m 고래 조형물을 설치했다. 4 미국의 제로마켓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빨대나 생분해되는 제품 등을 판매한다. 5 흠집이 있어 팔지 못하는 크로와상과 배를 원료로 만든 에일 맥주는 재활용병에 담아 판매한다.

2

3

쓰레기가 산과 섬을 이뤄버린 시대

지난 4월 한국은 ‘쓰레기 대란’을 겪었다. 중국이 재활용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국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2015년 기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민 1인은 하루 평균 0.94kg의 쓰레기를 배출하며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 역시 1인당 420개로, 4개인 핀란드, 70개인 독일에 비해 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쓰레기 수입 보이콧을 진행하기 전까지 전 세계의 쓰레기 50%가량을 수입해 온 중국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왕구량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가 큰 몫을 했다. 산둥성의 작은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다큐멘터리는 중국의 재활용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쓰레기가 산을 이룬 마을과 그 위를 뛰놀며 보물을 찾듯 폐 플라스틱을 뒤적이는 아이들, 또 플라스틱을 먹다가 죽어가는 염소와 물고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중국의 어두운 면을 담아냈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내 영화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번지며 중국 내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냈다.

그간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간 걸까? 다수 환경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를 떠돌며 조류에 따라 여러 개의 섬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중 큰 섬은 한반도 면적의 약 7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오염이 심한 지역의 경우 1㎢당 100만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쓰레기 수프 또는 플라스틱 수프라 불린다. 미국의 비영리 언론기관 오르브 미디어(OrbMedia.org)와 미네소타대 공중보건대학이 지난해 실시한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유럽·아시아 등 14개국의 수돗물 샘플 159개 중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고래·물고기·거북이 등 많은 해양 동물의 몸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던 것을 넘어 이제 사람까지 식수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세계 곳곳,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유럽연합(EU)은 매년 유럽에서만 258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재활용되는 양은 30%에 불과하며 39%가 소각, 31%가 매립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라 유럽에서만 연간 플라스틱 빨대 360억 개, 테이크아웃 컵 160억 개를 사용한다는 보고도 발표됐다. 빨대, 일회용 식기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개의 플라스틱 제품이 어업 도구와 함께 바다 쓰레기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EU는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10종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 이후에는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한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다이옥신 문제를 비롯해 쓰레기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캐나다 등의 여러 국가와 식품 업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스타벅스는 지난 3월 10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친환경 테이크아웃 컵 디자인 공모전을 시작했으며 뉴욕주에서는 레스토랑·바·카페 등에서 일회용 빨대와 납작 스틱을 종이 및 금속 재질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내년 6월부터 레스토랑과 술집에서 일회용 빨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4

5

법적 규제를 넘어선 세계적 움직임

이러한 환경보호에 대한 움직임은 정책을 넘어서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선두에 있는 환경운동가 콜린 베번은 2006년 아내와 두 살배기 딸, 한 마리 강아지와 함께 1년간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 ‘노 임팩트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그의 가족은 자동차, 엘리베이터 대신 자전거와 계단을 이용하고 포장 음식을 사먹지 않으며 세탁기 대신 발로 밟아 빨래하는 불편한 실험을 이어갔다. 그의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책으로 소개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캐나다 북미권에서는 공공 전기·수도·가스 없는 ‘오프그리드’의 삶을 꿈꾸게 됐다. 나영석 PD 제작 예능 〈숲속의 작은 집〉처럼 말이다. 오프그리드에 대한 로망은 유튜브 채널 ‘My Self Reliance’ ‘Happen Films’의 인기로 이어진다. 채널들은 공공 설비 없이 자급자족하는 방법이나 적은 살림살이로 생활하는 방법, 농사, 채집에 대한 노하우 등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난 오프그리드 삶의 장점을 일러준다.

도시생활자가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베아 존슨의 가족이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고 프리사이클링(재활용 이전에 폐기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을 통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제안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1회용품 거절하기·줄이기·재사용하기·재활용하기·썩히기 5단계의 원칙을 통해 매년 유리병 한 통 크기의 쓰레기만 배출하고 있으며, 소비를 줄여 저축한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한다. 국내에서도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을 몸소 깨달은 여러 시민이 비닐 없이 장보기, 휴대용 젓가락, 텀블러 사용하기 등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 ‘제로 플라스틱’ 캠페인에 동참 중이다. 또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플로깅은 ‘줍다(pick u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며 주위의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다. 플로거들은 운동 후 #Plogging #1run1waste와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기록을 남긴다. 운동과 환경운동을 겸하는 셈이다.

이러한 환경 운동은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 판매자에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 덴버에 위치한 ‘제로마켓’을 비롯해 북미,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프리사이클링 마켓이 대표적이다. 물건 구입에 쓰이는 포장지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곡식, 과일, 와인 등을 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참했을 때에만 물건을 판매한다. 국내에는 작년 여름 성수동에 생분해 용기만을 사용하는 그로서란트 ‘더 피커’가 문을 열었다. 또 생산 단계부터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물건 개발에도 열을 올린다. 영국의 맥주회사 노던 몽크 브루(Northern Monk Brew)는 흠집 때문에 판매되지 못하는 크로와상과 배를 이용해 만든 ‘제로 웨이스트 맥주’를 출시했으며, 맥주 양조 후 남은 펄프는 가축의 먹이로 쓰이거나 누에농장에 기부된다.

사고 버리는 일을 고민하는 삶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은 개인의 취향, 미감, 관심사 등 많은 것을 말해준다.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빠르게, 또 쉽게 집 앞으로 물건을 배송받게 됐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존재를 증명하듯 물건을 사들인다. 동시에, 너무 쉽게 버린다. 환경보호는 이제 환경운동가 혹은 환경단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쉽게 쓰고 버리던 패스트 라이프의 역습이자, 모두에게 던져진 주사위다. 연일 심해지는 미세먼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이상기후에 한숨 쉬기보다 당신의 일상을 들여다보자. 책상 위에 쌓인 몇 잔의 테이크아웃 컵과 널브러진 A4 용지들, 24시간 켜진 모니터는 무엇을 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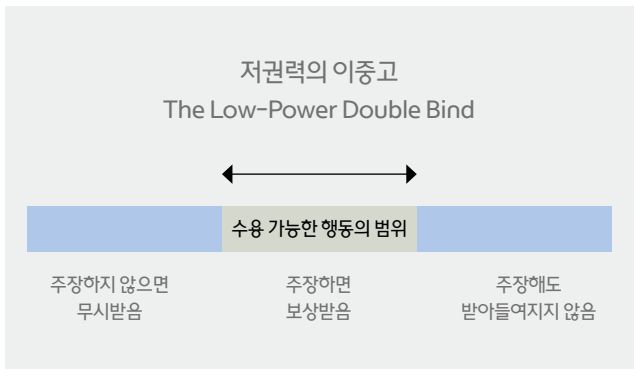
현명하게 할 말은 하고 사는 법

TED 강연 ④아담 갈린스키 18분 안에 세계 지식이 공유되는 무대 TED강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일종의 재능 기부로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번 〈사보신문〉에서는 효과적으로 자기주장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신디 / 자료출처=『강연 읽는 시간』

강연 동영상 보기

"이 대리, 그 발표 자료 내일 오전까지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상사에게 '제정신이세요? 당연히 못하죠!'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러나 실상은 난감함 대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네! 물론이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 같은 두려움은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할까 말까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의견을 내지 못해 손해를 보고 기껏 용기 내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은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누구는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반면, 더러는 무시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비호감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할 말은 제대로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교 학장이자,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Adam Galinsky)는 이러한 자기주장의 근본적 문제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범위'와 '권력'에 있다고 한다.

자기주장은 권력의 문제, 저권력의 이중고에서 벗어나라!



우리에게는 각자 '수용 가능한 행동 범위'가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범위이다. 수용 가능한 행동의 범위가 넓을수록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보상받게 될 확률이 커진다. 즉 할 말은 하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범위가 좁으면 말하면 욕을 먹고, 가만히 참고 있으면 무시를 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상상만 해도 억울하지 않은가?

아담 갈린스키는 이런 억울한 현상을 가리켜 저권력의 이중고(The low-power double bind)라 설명한다. 혹시 말할 때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다면 '저권력의 이중고'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보자. 자기주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왜 사람마다 이 범위가 다른지, 무엇이 범위를 넓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가지 결정적인 변인은 바로 권력(Power)이다. 우리가 가진 권력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보통 자기주장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인관계 능력, 처세술 혹은 화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더러는 내성적인 성격을 탓하며 자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담 갈린스키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저권력의 이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이나 화술을 쌓기보다는, 권력을 만들어 각자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넓혀야 한다.

권력을 만드는 두 가지 포인트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막대한 부를 거머쥔 재벌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소수 특정 계층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권력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희망적인 사실은 이 권력이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충분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첫째 본인이 느끼기에 자신 스스로 권력이 있어 보여야 하고, 둘째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권력이 있어 보여야 한다.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범위는 완전히 좁아진다. 일단 스스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또한 실제로도 힘이 부여돼 주장의 범위가 확장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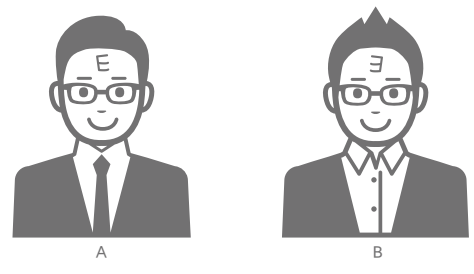
주장 범위를 넓히는 7가지 방법

①타인 옹호하기

범위를 넓히는 첫 번째 방법은 타인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는 '엄마 곰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이의 주장을 지지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받아들여지는 주장의 범위도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주장하기

주장을 할 때는 역지사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타인의 입장을 취해보는 것이다. 도덕책 같은 소리라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권력의 범위를 넓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개선의 효과도 크다. 아담 갈린스키가 예를 든 실험은 이마에 알파벳 E를 그려보는 것이다. 직접 한번 그려보자.



A와 B 중 어떻게 그렸는가? B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렸지만 A는 상대의 입장을 취해 E를 그렸다. 보는 입장에서 어느 편이 더 잘 받아지는가? 당연히 A다. 주장하기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확률도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무언가를 주장하기에 앞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자.

③선택권 주기

쉽게 말해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을 때 덜 방어적이고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옷 입기 싫다고 투정하는 아이에게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하고 선택권을 주면 별 저항 없이 금방 옷을 선택해 입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사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서너 번 왔다 갔다 할 일을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다.

④내 편 만들기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으면 범위는 자연스레 넓어진다. 다만 타인을 깎아내려 편을 만들지는 말자. 동맹을 만드는 좋은 방법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다.

⑤조언 구하기

다섯 번째로는 '조언 구하기'의 방법을 추천한다. 이는 아부와는 다르다. 아부는 부담스럽지만 조언 구하기는 겸손하게 다가가 상대를 치켜세우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와 같은 조언 구하기는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자신이 한 일을 직접 말하자니 자랑하는 것 같아 민망하고, 가만히 있자니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아 고민 중인가? 그렇다면 조언 구하기 방법을 사용해보라. 당신이 조언을 구한 누군가는 나중에라도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다.

⑥전문성 보이기

보다 더 당당하게 주장하는 방법은 바로 전문성을 갖췄을 때다. 전문성은 곧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권력이 많고 범위가 넓으면 적당한 증거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권력이 적으면 주장할 때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자신의 범위가 좁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주장하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해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⑦열정 드러내기

마지막 방법은 열정을 보이는 것이다. 열정에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정 있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보다 눈이 반짝이고 적극적이게 된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이해나 허락을 하기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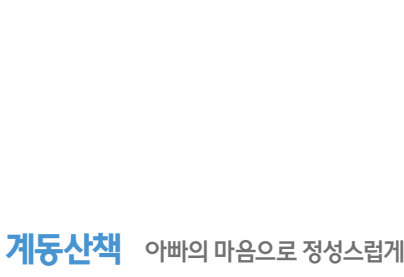
당신의 범위는 안녕한가? 할 말은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도 참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는가.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일상에서 자신의 권력을 세우고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내 목소리를 당당히 낸다는 것은 단지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충분히 실현하며 즐겁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확실한 건 이 범위는 계속 변하며 범위가 넓어질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 범위가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남들이 내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거절한다고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를 점검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어떻게 이 범위를 확장할지 고민하자. 자신의 범위를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일 테니 말이다.

아담 갈린스키(Adam Galinsky)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비영리 기관,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저술,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리더십, 협상, 다양성, 의사결정 및 윤리에 관한 20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법'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펼친다.

계동산책 아빠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담아낸 집밥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삼청동 마담면. 글=강은비 / 사진=이슬기

집밥처럼 건강한 한 그릇 '마담면'


1

2

3

1 진한 멸치 육수가 감칠맛 나는 '마음을 담아내면'. 8000원. 2 90년 된 한옥의 처마와 기둥을 살린 고즈넉한 내부 전경. 3 고기 맛을 살리는 지미추리 소스와 잘 구워진 척아이롤 스테이크. 1만4000원. 4 정갈한 건강 한 끼, 명란 아보카도 덮밥. 1만1000원.

삼청동 거리를 걷다 문득 집밥이 생각난다면 '마담면'에 들러보자. 마담면이란 '마음을 담아내면'의 줄임말로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 셰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만 제공한다는 마담면은 어떠한 화학조미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신 본연의 감칠맛을 위해 매일 아침 시장에 들러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고 당일 조리·소진이 원칙이라고 한다.

4

가게 앞 글귀에도 적혀 있는 마담면의 대표 메뉴는 멸치국수, 명란아보카도 덮밥과 척아이롤 스테이크다. 셰프의 큰딸이 좋아한다는 국수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다. 멸치 육수는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멸치를 다듬고 살짝 볶아 2시간 이상 끓여내는 게 비법이다. 또한 탱탱하고 쫄깃한 생면의 식감이 더욱 입맛을 자극한다.

명란 아보카도 덮밥은 이색 재료들이 모여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에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로 좋다. 정갈하게 얹어진 아보카도와 명란 위 달걀프라이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명란은 갖가지 재료와 함께 셰프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숙성시킨 데다 간이 세지 않아 건강까지 생각했다.

모든 스테이크는 맛있지만, 마담면의 척아이롤 스테이크는 더욱 풍미가 깊다. 각종 야채로 만든 밑간이 육즙을 살려 고기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한 것 또한 이곳만의 비결이다. 스테이크와 같이 제공되는 '지미추리 소스'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소스로 각종 허브와 파슬리를 넣고 만들어 상큼하고 알싸한 맛을 내 고기 누린내는 물론 느끼함까지 완벽하게 잡아준다.

집밥 음식이 그리웠거나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고자 한다면 마담면에 방문해보자.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무엇보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건강 맛집을 찾고 있었다면 꼭 한번 들러보자.

마담면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3길 79 (아트선재센터 옆 건물)
영업시간 매일 오전 11시30분~오후 9시 (재료소진시 영업마감)
문의 02-732-7768

현대 味술랭가이드

민윤건 대리
★★★★½ 4.5/5점
정갈한 플레이팅은 물론 건강하게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추천! 밥 먹고 삼청동도 산책할 수 있어 좋아요!

김영창 대리
★★★★ 4/5점
지미추리 소스가 일품인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 테이블 간 거리가 여유 있어 담소 나누기도 제격인 이곳을 강력 추천합니다!

민환석 대리
★★★★ 4/5점
양식과 한식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 아보카도의 기름지고 신선한 맛과 진한 멸치국수를 함께 즐겨보세요!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을 제시하면
전 메뉴 1000원 할인
(음료 제외)

일상 안전매뉴얼 자칫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상 속 상황들을 살펴보자.

낭만 찾아 떠난 '캠핑 안전 매뉴얼'

1 캠핑 전 자동차 점검

무거운 짐은 차량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불필요한 장비는 줄이고, 떠나기 전 브레이크·엔진오일·타이어 등 자동차 점검을 꼭 하자.

2 여름 캠핑, 음식물 관리 철저히

여름에는 음식물이 빠르게 부패하므로 차갑게 운반하고 보관해야 한다. 아이스박스 보관 시, 과일과 채소가 고기와 생선의 육즙에 닿지 않게 주의하자!

3 강한 향의 화장품 사용 자제

향이 있는 화장품은 벌과 많은 벌레를 부른다. 될 수 있으면 긴소매 옷을 입고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자. 또한 벌레기피제와 치료제 등 기본 상비약도 잊지말고 챙기자.

4 부탄캔 사용 주의

캠핑장 화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가열된 부탄캔의 폭발사고다. 가스버너를 두 개 이상 사용할 때는 거리를 두자. 다 쓴 캔은 구멍을 뚫어 분리수거하는 것 또한 잊지 말자.

5 전기릴선은 다 풀어서 사용

전기릴선을 감아놓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전선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다. 선은 다 풀어서 사용하고 소비전력이 큰 난로나 밥솥은 자제하자.

6 야외활동 시 일교차 대비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자연은 일교차가 크다.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는 특히 체온 유지에 신경 쓰고 바람막이 점퍼·담요·긴소매 등을 챙겨 가자.

TIP 캠핑 고수로 등업하는 '텐트 설치 노하우'

1 텐트 설치법 숙지하기
캠핑 전 미리 설치 연습을 하고 설치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자. 그래야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기
바닷가에서는 밀물의 높이를, 산과 계곡은 안전을 고려해 평지의 고지대에 설치하자. 배수로 확보도 필수다.

3 스트링은 팽팽하게, 팩은 깊게
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스트링은 최대한 팽팽하게, 팩은 지면과 45도 정도의 기울기로 깊게 박아야 한다.

4 통풍구 확보하기
텐트 내부의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 난방기를 사용하는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통풍구를 확보하자.

출처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http://osafe.kr/)
COPYRIGHT ⓒ 2014 SAFETY DESIGN LAB. OSAFE

신카이 마코토 展:

〈별의 목소리〉부터 〈너의 이름은〉까지

2018.07.13.~09.26.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3·4전시실 / 관람시간 11:00~20:00

국내 역대 일본 영화 흥행 1위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전이 오는 7월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다. 신카이 마코토의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일본 시즈오카에서 시작해 도쿄, 홋카이도, 오사카를 비롯해 타이베이, 상하이 등 월드투어에 나선 전시다. 신카이 마코토의 주요 작품은 데뷔작 〈별의 목소리〉와 〈언어의 정원〉 〈너의 이름은〉. 아름다운 영상과 섬세한 감정 묘사로 '디지털 시대의 영상문학'이라고 불린다. 이번 전시는 작품별 원화를 비롯한 설정 자료, 애니메이션 콘티, 작화, 배경 아트워크 등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그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전시에서는 월드투어 최초로 애니메이션 속 명장면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만난 첫 사랑(타카키와 아라리), 초록의 비가 내리는 정원에서 함께한 남과 여(유키노와 다카오) 등 명장면들이 180도 와이드 스크린과 프로젝터 매핑 등을 이용해 눈앞에 펼쳐진다. 관객들은 마치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가 있는 듯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 또 지난 〈너의 이름은〉展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스케치존'이 보다 넓은 규모로 마련돼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을 그대로 따라 그려 볼 수 있으며, 이번 전시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굿즈도 만나볼 수 있다.

1 〈너의 이름은〉
2 〈초속 5센티미터〉
3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4 〈별의 목소리〉
5 〈별을 쫓는 아이:아가르타의 전설〉